

남해안 관광자원 광역벨트 묶어 신성장 동력 육성

■제5차 국토종합계획 광주·전남 무순 사업 담겼나

정부가 3일 확정된 '제 5차 국토종합계획' (2020-2040)의 핵심은 국가 주도의 기존 국토 개발 방식이 아닌,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지역 간 격차와 불균형·인구집중 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 중점을 두고 20년 뒤 미래상을 새롭게 그렸다는 점이다.

특히 정부가 이날 심의·의결한 '제 5차 국토종합계획'에 처음으로 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광역·연계 협력 사업을 대거 포함한 것도 이러한 인식이 반영된 조치다.

전남에서는 풍부한 블루자원을 바탕으로 지역과 국가발전을 이끌어갈 핵심 성장축으로 도약하겠다는 전남도의 핵심 정책인 '블루 이코노미'의 6개 프로젝트가 문화·관광, 교통·인프라, 산업 분야 등에 담겼다. 광주에서도 혁신도시와 연계한 에너지 산업벨트, 광주·전남·부산을 잇는 광역 교통망 구상 등을 제안해 계획에 반영됐다.

광주시와 전남도 안팎에서는 국토종합계획이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근거, 새로운 국토 비전과 전략을 담아낸 국가의 최상위 공간계획이라는 점에서 이번 계획에 반영된 광주·전남지역 주요 사업들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광주·전남 광역 연계·협력 사업 보나=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관광·문화 등의

동서 내륙 간선도로·철도 확충

전라선 고속철도·경전선 등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도 제안

분야에서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투자협약 제도 등으로 이를 지원하며 국가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게 새로운 국토종합계획에 담긴 정부 입장이다.

정부는 이같은 점을 감안, 처음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광역·연계 협력 사업을 대거 포함하고 향후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제 5차 국토종합계획'에 담긴 전국 지자체들이 제안한 광역 연계·협력 사업 중 광주·전남지역의 연계·협력이 필요한 사업으로는 ▲남해안 광역 문화관광권 개발 ▲전라천년문화권 광역관광개발 ▲남해안권 동행시간 단축 ▲동서 내륙간선도로 확충 ▲동서 내륙철도 확충 ▲남해안 고속화철도 등이다. 전남은 여기에 더해 ▲전북대도 시권 형성을 위한 첨단교통체계 구축 ▲강원·충청·호남을 연결하는 '강호축' 산업 및 교통망 구축과 관련된 사업도 추진한다. 강

호축은 이시종 충북지사가 국토 불균형 해소, 미래 혁신동력 확보를 위해 제안한 개념이다. 전남을 비롯, 전북, 충남·북, 강원 등 8개 시·도는 지난 9월 강호축 발전포럼을 출범시킨 데 이어 오는 10일 목포 신안 비치호텔에서 제 2차 강호축 발전포럼을 열고 발전방향 설정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남해안 광역 문화관광권 개발사업의 경우 남해안에 흩어져 있는 관광자원을 하나의 광역벨트로 묶어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구축사업'이 핵심 내용이다. 전라천년문화권 광역관광개발은 전남도가 전라도 정명 천년을 기념해 추진중인 사업들을 포함한 광주와 전남·북이 제안한 사업들이 대상이다.

교통·인프라에 포함된 사업들도 남해안 철도, 전라선 고속철도, 경전선 등 전남도가 지역 접근성 개선을 위해 추진중인 교통 연계망 구축 사업들이다.

◇규제자유특구 중심의 지역별 혁신성장 공간 확충=정부는 또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신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별 혁신성장 공간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전남의 경우 영광·신안·목포 일대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와 혁신도시 일대 '에너지 신산업 규제자유특구'가 신산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육성되고, 광주에서는 진국산단 등을 포함한 '무인 저속 특장차 규제자유특구'가 혁신성장 공간의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특히 변화된 산업입지 수요에 맞게 인재 수급이 원활한 도심, 대학 등에 산업공간을 확충하고 일터·살터·쉼터가 조화된 공간을 조성, 투자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미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에너지 발전시설과 에너지 관련 기업·기관·연구소 등을 하나로 묶어 협력을 촉진하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하는 등 혁신성장 공간 확충에 나선 상태다.

정부는 여기에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관광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간 연계 관광자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빈소를 조문한 뒤 굳은 표정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발굴을 지원, 지역경제의 동반 성장을 추진한다는 전라도 국토종합계획에 담았다.

이밖에 제 5차 국토종합계획은 인구 감소를 전제로 한 공간 재배치와 녹지공간 확충, 국토부와 환경부 협업을 통해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국토발전을 염두에 둔 전략을 포함했다. 정부는 아울러 새 국토종합계획에 개인용 모빌리티 증가에 대응해 도로·보도로 이뤄진 기존 도로체계를 개편하고 드론과 소형비행기 등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항공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내용 등도 포함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靑, 침묵 모드... '하명 수사' 의혹 대응 자제

백원우 전 비서관, 검찰 수사관 빈소 찾아 조문

청와대는 3일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이끈 바 '백원우 별동대'가 가동됐다는 의혹 등 '하명 수사' 논란과 관련해 추가적인 대응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동안 제기된 '하명 수사' 의혹에 더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아래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이 숨진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전남 모습과는 사뭇 다른 태도였다. 전날까지 적극적인 해명을 했다는 점에서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한' 브리핑이 예정돼 있다'라는 물음에 "오늘은 발표가 없다"면서 "어제는 고인에 대한 명예 회복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역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입장이 있다"라는 질문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며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는 것이고..."라고 대답했다.

고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사망한 검찰 수사관을 포함한 2명의 특감반 이) 직제상 없는 일을 했다든지, 백 전 비서관의 별동대였는지 하는 등의 의혹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또 고인이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는 동료에게 "왜 검찰이 자신을 부르는지 모른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여권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고인을 압박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가 공개한 고인의 언급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자신의 밑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의 빈소를 찾았다. 빈소를 지키던 고인의 유족은 백 전 비서관을 끌어안고는 큰 소리로 통곡하며 눈물을 쏟았다. 김조원 민정수석도 이날 이광철 민정비서관, 김영식 법무비서관 등과 함께 사망한 검찰 수사관의 서울성모병원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전남도, 한전·11개 대학과 방사광가속기 유치 힘 모은다 대학 총장 간담회·공동협력 협약

전남도가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위해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 11개 대학과 함께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3일 광주시 서구 라마다플라자광주호텔에서 한전공대 설립 상황을 공유하고 한전공대와 연계한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위한 광주·전남 소재 대학 총장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김종갑 한전 사장, 정병석 전남대 총장, 민영돈 조선대 총장, 김기선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혁중

광주대 총장, 이선재 광주여대 총장, 박상철 호남대 총장, 최일 동신대 총장, 박민서 목포대 총장, 고영진 순천대 총장, 박종구 조양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한전공대와 연계해 광주·전남 에너지벨트를 세계적 산학연 클러스터로 육성하기로 했다. AI 융복합 산업, 자동차, 에너지 신소재, 의료바이오, 금속 신소재, 고기능성 석유화학, 탄소산업 등 소재·부품·기초산업 연구·육성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이 절실하

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한전공대 연구·클러스터 부지에 유치하기 위해 공동협력하고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호남권 유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내용도 협약에 담았다. 차세대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성과를 활용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로 했다. 연구개발 공동연구, 장비 공동활용, 교육·연구 협업 등 광주·전남 대학과 한전공대 간 상호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공동협력 협약은 유치 활동의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방사광가속기 유치전략을 마련하고 호남권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유치 사업을 도정 최대 현안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9월 학계·이용자·설치자 등 36명의 전문가로 자문단을 출범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광주과학기술원·광주전남연구원 등과 함께 방사광가속기 구축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